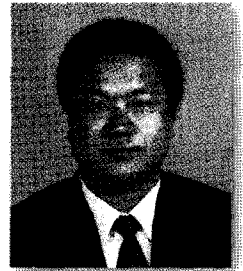


*Acer tegmentosum*

# 산겨릅나무

- ▶ 과명 : 단풍나무과
- ▶ 학명 : *Acer tegmentosum*
- ▶ 영명 : Manchustriple Maple
- ▶ 한명 : 瓜肅槭
- ▶ 일명 : まんじょうりはだかえで



최명섭

(국립산림과학원 대외협력과)

1986년 민속의학자인 인산 김일훈 선생이 지은 <신약(神藥)>이라는 책자에 노나무, 벌나무라는 나무 2종이 소개되는데 노나무 벌나무 외에도 많은 약용식물이 소개되었지만 유난히 노나무와 벌나무가 일반 독자에게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 책에 벌나무라는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나무가 간암, 간경화, 백혈병 등 일체의 간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으며 최근에는 산청목으로 알려져 왔다.

그 책이 출간되면서 간암으로 고생하시는 당사자나 그 가족이 엄청나게 전화를 하였는데 마침 나무에 대한 민원 해결을 담당하고 있어서 그 많은 전화를 받아 해결하느라 진땀은 흘린 적이 있다. 국내에서 발간된 본초학 서적이거나, 그 외 문헌들 또는 중국에서 발간된 본초와 관련된 서적을 찾아 노나무, 벌나무를 찾느라 땀을 뻘뻘 흘린 적이 있는데, 2 수종 중 노나무라고 불리는 나무는 개오동나무, 또는 꽃개오동나무로 확인되어 알려 드렸지만 벌나무(산청목)는 알 수가 없어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지 못하고 말았는데 2~3년 전부터 다시 산청목이라 하여 강원도로 출장이나 여행을 가다 보면 휴게소에서 판매되는 약용수종 중에 산청목, 겨우살이 등이 판매되고 있고 서울의 동대문 제기동 약령시장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산청목이 판매되고 있다. 나무의 이름을 확인한바 산겨릅나무로 확인되었다.

산림청에서는 산겨릅나무 보호를 지방산림청에 지시한 적도 있다. 효과는 알 수가 없지만 인터넷상에 올



라있는 임상 사례들이 많이도 올라 있다.

산겨릅나무는 중부 이북의 표고 500m 이상의 심산계곡과 산록에 자생하는 낙엽활엽 큰키나무로서 수고 15m에 달하고 수피는 녹색으로 흰색 줄이 세로로 나 있어 이색적인 느낌을 준다. 줄기는 곧게 올라가서 원정형으로 퍼진다. 가래나무, 거계수, 사스레나무, 물푸레나무, 박달나무 등과 혼생하며 그늘에서 잘 견뎌 큰 나무 아래에서도 잘 생육하고 풍부한 부식질과 적절한 토양을 좋아하며 천연하중 발아가 잘 된다.

잎은 마주나고 길이 7~16cm로서 넓은 달걀모양이거나 원형이며 끝이 3~5개로 갈라지고 기부에서 5개의 맥이 갈라진다. 길이 8cm의 총상화서(總狀花序)는 가지 끝에서 나와 밑으로 처지고 연약하며, 꽃은 자웅이가화(雌雄二家花)로 5월에 황색으로 핀다. 총상화서에 달리는 시과(翅果)는 직각 또는 둔각으로 벌어지며 9월에 익는다.

넓고 크며 깨끗한 잎이 녹음을 마음껏 펼칠 때 남국적인 정취를 느낄 수 있으며 가을에 노란색으로 물드는 단풍은 이색적이고 낭만적이다. 낙엽이 진 후의 녹색 수피에 물들인 흰색 줄무늬는 자연이 창조한 옷감 같은 감정을 주며 여기에 백설이 내려 설화(雪花)를 만들면 더욱 아름답다.

조경용으로 식재 시 단목으로 식재하는 것 보다 침엽수와 활엽수를 혼식하고 그 사이에 산겨릅나무를 식재하면 더 아름다운 줄기를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단목으로 햇빛을 많이 받는 곳에 식재하면 줄기의 녹색은 사라지고 검은 갈색의 수피로 변한다. 또한 줄기의 껍질이 얇아 서향 빛을 받는 줄기는 껍질이 타서 세로로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

번식은 가을에 완숙되기 전에 종자를 채취하여 종자 1 : 모래 3의 비율로 섞어 땅속에 묻었다가 이듬해 봄에 파종한다.

홍릉수목원에는 일본에서 도입된 유사종으로 *Acer rufinerve*를 식재하였더니 형태는 산겨릅과 유사한데 번식력이 훨씬 더 좋아 큰 나무 아래 천연하중된 치수가 뽕뽕이 발아되어 있으며, 다른 종으로 일본이 원산인 *Acer nikoense*는 줄기를 대팻밥처럼 얇게 가공하여 티백으로 판매하는데 효능을 보면 간을 좋게 하여 눈을 밝게 하는 것으로 표식 되어 있으며 상당히 고가로 판매되고 있다. 🌲